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도서관, 그 수난의 역사



1499년 12월의 어느 날, 한 무리의 기독교 병사들이 가르나타(그라나다)에 있는 159개 도서관과 개인 소장 도서로 널리 알려진 저택 10여 곳에 난입한다. 그들은 거기서 아랍어로 씌어진 모든 것을 몰수한다.

“코란 수천 부와 더불어 그 장점과 결점에 관한 박식한 논평과 신학적·철학적인 사유가 담긴 책들, 아름다운 글씨로 기록된 이 모든 책들이 제복 입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마구잡이로 수레에 실려 나갔다. 알안달루스의 지적인 삶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진귀한 원고들도 병사들이 아무렇게나 꾸린 짐 속에 처박혔다. 병사들은 원고 수십만 권으로 하

루 종일 벽을 쌓았다. 반도 전체의 지혜가 바브 알람라 아래 오래된 비단 시장에 모여 있는 셈이었다.”

알안달루스는 이슬람을 믿는 무어인이 다스린 스페인 지역을 일컫는 것이고, 바브 알람라는 가르나타에 있는 이슬람 대사원을 말한다. 이윽고 스페인 가톨릭 고위 성직자의 신호를 전달받은 병사는 책으로 만든 벽에 불을 붙인다. 타리크 알리의 장편소설 『석류나무 그늘 아래』(정영목 옮김, 미래M&B, 2007)의 프롤로그는 히메네스 데 시스네로스 대주교의 주도 아래 자행된 대규모 분서를 묘사한 것이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이 사건은 프랑스의 서지학자이며 중국학과 아랍문학 전문가인 뤼시앵 폴라스트롱이 작성한 ‘도서관 파괴사 연표’에도 나온다. “1499 그라나다에서 이슬람교도의 책에 대한



최 성 일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대규모 화형식이 벌어지다.” 폴라스트롱이 지은 『사라진 책의 역사』(이세진 옮김, 동아일보사, 2006)는 도서관 수난사다. 그는 이 책에서 장서 파괴를 역사의 궤적을 따라 고찰한다.

‘도서관 파괴사 연표’는 도서관 수난사가 문명의 역사와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꿔 말하면, 인류문명사는 야만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기원전과 기원후를 막론하고, 크고 작다는 차이만 있을 뿐, 도서관

의 수난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책이란 아예 존재한 적도 없다는 듯이 기필코 없애버리려는 도서관 파괴자들의 의지가 커다란 위협이 돼온 탓이다. 폴라스트롱은 그런 위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도서관 파괴자들은 어째서 책과 도서관을 없애지 못해 안달을 부리고, 미친 듯 날뛰는 것일까? “과거 중국의 법가(法家) 사상가들이나 체코슬로바키아의 나치주의자들은 민중이 깨우치게 되면 지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을 읽지 못하게 불살랐다. 또한 정복자들은 아스텍 제국 같은 피정복 국가의 역사나 신앙을 바꾸기 위해 책을 파괴하기도 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천년왕국설 신봉자들은 무식한 사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며 책을 경계했다. 이따금 신흥세력이 등장하여 자기들에게 위협요소가 된다는 이유로 어떤 책들을 없애버리기도 했다.”

팬스레 단지 심심파적 삼아 책을 불사른 사례도 심심치 않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책이 사람의 분신이고, 책을 불사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해당한다



는 것이다.”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판국에 책을 훼손하는 것이 무에 그리 대단하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제는 교활하고 야비하며 무식한 인간들에게 있다. 책은 애꿎은 희생양일 따름이다.

프랑스군의 야만성

“도서관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만족을 모르는 흡혈귀, 약탈로 배불리는 장물아비를 숨겨

주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그런 약탈은 너무나 빨리 잊혀진다. ‘풍요로운 도서관’은 사실 ‘죽은 도서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도서관은 그저 식민지의 노획물, 떼뭇치 못한 장물들을 진열한 박물관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서 폴라스트롱은 그의 조국 프랑스를 거론한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공짜로 가져온 책들로 피동피동 살을 찌웠다는 것이다. 1940년 프랑스 파리가 나치 독일에 점령당해 책들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고 하고선 “이 정도만 말해두자”며 말문을 닫는다. 하지만 약탈 대상국의 하나였던 우리는 이 얘길 더 할 이유가 충분하다.

한때나마 우리는 노예적 근성에 사로잡혀 프랑스 군인들이 우리 옛 책들을 가져간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옛 책들을 훔친 절도범이고, 약탈한 범죄자들이다. 우리가 옛 책들을 찾아올 기회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고속철도사업 파트너로 프랑스의 테제베를 선정할 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옛 책들의 반환을 요구했어야 했다. 자긍심과 문화적 안목이 부족한데다 협상력마



저 없는 우리 행정 관료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지만 말이다. 이준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문헌정보학·前한국도서관협회 회장)가 ‘추천의 글’에서 되새겨주는 프랑스의 문화적 만행은, 새삼스레 프랑스국립도서관 여자사서의 찢김거림을 연상시키며 화답지가 난다.

“프랑스 함대의 로즈(Roze) 제독은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구실로 고종 3년(1866) 10월 군함 7척을 이끌고 강화해협을 거슬러 올라와 14일에는 강화도 서북단의 갑곶(甲串津)에 상륙하고, 16일에는 강화부를 점령하여 군기(軍器)와 양식, 서적 등을 약탈하였다. 이 때 약탈해간 서적은 행궁(行宮) 동편에 있는 외규장각(外奎章閣) 소장본 중 일부였다. 외규장각은 정조 6년에 건축되었으며 왕립도서관인 서울의 규장각이 본관이라면 이것은 그 분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시 외규장각에는 5000~6000권 정도의 서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군은 이중에서도 장정(裝幀)이 아름답고 천연색 그림이 들어 있는 큼직한 책들만을 골라 약탈해 갔으며, 나머지 책들은 그들이 퇴각할 때 건물과 함께 모두 불질러버렸다.”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탈해간 책들은 가철(假綴)된 큰 책 300권과 가철된 작은 책 9권 등을 합쳐 모두 340책이다. 프랑스군의 병인양요 약탈 덕분에(?) 살아남은 책은 외규장각 소장도서의 5% 남짓에 불과하다. 이마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으리란 추정은 지나친 예단이고 심한 자기비하다.

영국과 독일

공교롭게도 특정한 나라와 집단에 의해 자행된 책과 도서관 파괴의 양상은 그들의 이미지와 성향을 반영한다. “영국에는 책을 사랑

하는 문화가 발달했다고들 한다. 그런 영국에서도 한때는 책에 관한 온갖 속임수와 조잡한 짓거리가 난무했다.” 1298년 에드워드 1세는 윌리엄 윌리스 경을 내치면서 스코틀랜드인들을 뿌리 뽑는 과정에서 레스텐노스 도서관을 파괴하고 퍼거스 2세가 로마에서 가져온 귀중한 장서들을 찢더미로 만든다. 1550년 에드워드 6세는 하수인들에게 ‘옛 가르침’에 물든 입을거리를 모조리 파괴하라고 명령한다.

“독일 점령지 도서관에 대한 수탈 행위 역시 야만적이고 즉각적이었다. 1934년 1월, 대표적인 나치즘 이론가 알프레드 로젠베르크는 출판, 선전, 나아가 약탈 행위를 통제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출판, 선전, (타국의) 도서관에 대한 약탈은 서로 맞물려 있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괴벨스(나치스의 선전장관)와 괴링이라는 경쟁자가 있었으나, 그는 한치의 실수도 없는 효율적인 집행 수완을 보여주었다.”

굵직한 수난들

“도서관은 자연적인 부패에 내맡겨진 채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고, 강력한 일격에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 소중한 책들을 자기 시신과 함께 장사지내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원히 그 책들을 접할 수 없게 하는 일은 역사상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기원전 1358 테베 도서관들이 파괴되다.

525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이집트 도서관들이 파괴되다.

213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가 분서(焚書)를 명하다.

48 알렉산드리아 화재. 이때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파괴했던 것

으로 짐작된다.

- 12** 아우구스투스가 대
신관이 되어 “미신에
젖은” 2,000권의
책을 불사르게 하다.
- 기원후 **273**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의 일부를 파괴했을
가능성이 있다.
- 642** 아랍인들이 알렉산드
리아 장서를 파괴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 1258** 몽골족이 바그다드의
36개 도서관을 파괴하다.
- 1945** 소련이 독일에서 1,200만 권의 장서
를 전리품으로 취하다. 이 중 대부분
이 1950년대 소련공산당의 숙청으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 2003** 미국의 ‘해방작전’으로 이라크의 거의
모든 장서가 약탈당하거나 화재로 소
실되다.

최근에는 방화범들이 도서관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불을 끄려고 뿌린 물도 도서관 소장도서 에 치명적이다. 그런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수도원 장서관의 규모는 부풀려졌다는 것이 중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설 속의 장서관에 대한 묘사를 보면 무려 8만 7,000권의 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1327년 당시의 수도원에는 기껏해야 코덱스 20권과 필사본 300권 정도가 소장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도 책을 갖추려면 송아지 800만 마리분의 가죽과 두 세대에 이르는 전세계 필경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과 독서에 대하여

고대 로마의 서지학 관련서가 현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아쉽다. 당시에는 한 가지 책이 단 한 권뿐이거나 몇 권밖에 없었다. 그나마 걸핏하면 불태워졌으니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다. 바로의 『서적 분류에 대하여(De bibliothecis)』는 완전히 소실되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바로의 책을 전부 불사르라 명령한 이는 마르

쿠스 안토니우스다. “페르가몬의 텔레포스가 썼다는 『책을 안다는 것』, 이레니우스 필로의 『도서의 획득』, 비티니아의 다모필로스의 『애서가』 등 이름만 전해오는 ‘유명한’ 책들도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스페인 지역의 이슬람 왕조 초기에는 책의 첫 페이지가 요즘 책의 책날개와 비슷한 구실을 한 모양이다. “모든 책의 첫 페이지에는 작가의 출생지, 출생일시, 출신 가문 등에 대한 사항은 물론,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들 제목까지 기록되었다.” 예전 책의 서지적 특성과 관련하여 선인들은 책을 쌓아놓기만 하는 풍토를 비판다. 서재 꾸미기 열풍을 비판하면서 세네카와 루키아노스는 이렇게 말했다. “기껏해야 첫 구절밖에 안 읽으면서 그 많은 책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당시에는 첫 구절이 곧 책의 제목이었다.

12세기에 나온 『경건한 사람들의 책(Sefer hasidim)』의 한 대목이다. “두 아들이 있다. 한 아들은 책을 빌려주기 싫어하고, 다른 아들은 기꺼이 책을 빌려주는 편이다. 이 경우 아버지는 주저하지 말고 책을 잘 빌려주는 아들에게



모든 장서를 물려주어야 한다. 비록 그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더 어리다고 해도 말이다.”

『사라진 책의 역사』 번역자는 ‘옮긴이의 글’을 통해 파괴된 도서관 목록의 시시콜콜한 나열과 숫자적인 통계를 장황하게 따지고 드는 부분에 손을 댔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분은 편집부의 제안을 따라 좀더 대중적으로 많은 이들과 만날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일부 요약하거나 생략했음을 일러둔다.” 완역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진 좀 유감스럽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르나, 한국어판에서 생략된 미지의 영역은 이 책의 주제를 관통하는 것일 수도 있다. 편집자와 번역자의 월권행위가 아닌가 한다.

플라스트룡은 더러 그의 반이슬람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어쨌든 그곳에 세워진 의미 없는 모스크는 이슬람교가 막을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유적 발굴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일깨워준다”거나, “튀니스(튀니지의 수도)가 낳은 위대한 학자 이븐 할둔은 마치 그리스도교도들의 지식은 가당치도 않다는 듯 이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면서.

종이책의 어두운 미래

종이책을 둘러싼 새로운 매체 환경을 보는 플라스트룡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에게, 인쇄되기 이전 상태로 컴퓨터 단말기에서 볼 수 있는 비물질적 도서라는 뜻의, 가상도서 컬렉션은 “종이책이 불러일으키는 현기증을 100배쯤 강화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이른바 가상도서관은 날로 팽창하는 추세다. 또 ‘카피 앤 페이스트(copy and paste, 복사와 붙이기)’가 펜을 대신한다.

“이 사이버 카탈로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도서관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가? 팽창 중에 있는 우주처럼, 인터넷은 수량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변화 그 자체이다. 광물을 캐는 광부처럼 하루 종일 직업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인터넷은 거의 전부가 잘못된 정보, 표절이나 위작, 새로 단장한 사이트들이 벗어놓은 허물, 어리석고 진부한 짓거리의 지겨운 나열일 뿐이다.”

인터넷을 통해 ‘학술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순 있으나, “이 새로운 글쓰기의 은하계는 과거 보편적,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지녔던 도서관이라는 실제와는 동일하지 않다.” 적어도 도서관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라도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낡은 정보, 느린 업데이트, 종이책의 정보를 그냥 웹상에 올리기 등은 ‘인터넷 강국’의 누리꾼에게도 불만족스럽다. 플라스트룡은 애매한 규모의 도서관들은 전부 사라지고, 오직 일부 특수도서관들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전망한다. 그는 전자책의 품질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그가 내다본 종이책의 운명의 몫시 비관적이다.

“종이책은 머지않아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대세이다. 우리의 주머니에서는 현금이 사라질 것이고, 신문은 이미 뚜렷한 몰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미래의 대학생들은 음악, 영화는 물론 냄새나 열기 같은 감각적 요소들까지 포함된 전세계의 작품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특수한 코덱스만 들고 다닐 것이다. 어쩌다가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이 옛날처럼 종이책을 들고 다니는 일도 있겠지만, 그 역시 재미들처럼 우글대는 문자들을 보고 금세 질려서 읽기를 포기해버릴 것이다.” (㉞)